

“하루가 힘든데”... 서민연료 LPG 값 오르나

전기·등유 등 연료 물가 1년 새 30% 가까이 올라 LPG, 국제 가격 급등에 내달 국내 가격 상승 예상 농어촌지역·영세 자영업자·택시업계 등 부담 가중

지난달 전기·가스·등유 등 제주의 연료 관련 물가지수가 1년전보다 30% 가까이 올라 제주도민들이 체감하는 겨울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서민연료로 불리는 액화석유가스(LPG)의 국제 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 다음달 국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1월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의 전기·가스·수도 소비자물가지수는 129.82

로 1년전(지난해 1월)보다 25.5% 올랐다. 전월에 견줘서는 7.6% 올랐다. 석유류 등 공업제품 소비자물가지수도 112.36으로 1년 전보다 6.0% 올랐다. 전월에 견줘서는 0.2%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 가스, 등유 등 연료들의 물가가 1년전보다 모두 올랐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전기료는 29.5%, 도시가스료는 28.6%, 등유 가격은 27.3% 각각 올랐다. 제주에서도 1년 사이 겨울철 연료 물가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시가스가 공

급되지 않은 농어촌지역에서 난방용으로 쓰이거나 식당 등 취사용 연료, 택시 연료 등으로 주로 쓰이는 LPG 가격마저 상승이 예상된다. 면서 취약계층·서민·영세 자영업자·택시업계 등에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도는 2021년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이 12.6%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LPG 사용 가구가 전체 가스 사용 가구(28만 9056가구)의 87.4%를 차지한다.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는 2월 국제 LPG 가격을 프로판과 부탄 모두 t(톤)당 790달러로 결정해 국내 LPG 수입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오던 국내 LPG 가격이 국제 LPG 가격에 원·달러 환율을 반영하면 3월부터 kg당 230~240원

가량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1월 넷째주 기준 가정·상업용 연료로 사용되는 도내 일반 프로판 평균 가격은 kg당 2609원으로 1년 전보다 36원(1.4%) 인상됐다. 택시·트럭 등 수송용 연료로 쓰이는 일반 부탄 평균 가격은 kg당 3113원으로 1년전보다 53원(1.7%) 인상됐다. 아파트·빌라 등 집단공급용 LPG 평균 가격은 m³당 3828원으로 1년전보다 83원(2.2%) 인상됐다. 제주도 노형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강모(48)씨는 “가뜩이나 손님도 없는데 오를 원재료값은 내려올 기미도 보이지 않고 겨울 난방비 부담까지 커져 하루하루가 힘들다”며 “전기요금도 또 오른다고 하고 여기에 LPG가격마저 오르면 저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책도 없다”고 토로했다. 박소정기자

제주지방법원 법관 9명 ‘새얼굴’

대법원 870명 전보 인사 제주4·3재심 재판 전담 장찬수 판사 광주법원행

제주4·3 재심 사건을 도맡았던 제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가 광주지방법원으로 떠난다. 대법원은 오는 20일과 3월 1일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466명, 지방법원 판사 404명 등 총 870명의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지난 3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서인덕·유성욱·임재남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입한다. 또 조양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광섭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주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며, 서울중앙지법 송주희 판사와 인천지법 배구민, 청주지법 고진홍, 제주지법 강관주 판사가 부장판사로

승진해 제주지법에 근무한다. 오지에 광주고법 판사도 제주지법으로 발령됐다.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판사들도 대거 이동한다. 특히 지난 3년간 제주4·3 재심 재판을 도맡았던 장찬수 부장판사의 공백이 눈에 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김연경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또 류호중·문종철·송현경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전입하며 박건창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강동훈 제주지법 판사는 광주고법으로 이선호 제주지법 판사는 수원지법 평택지원, 조정의 제주지법 판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양순 제주지법 판사는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각각 이동한다. 제주지법 조병대 부장판사는 명예퇴직한다. 김도영기자

찾아가는 검정고시 접수 도교육청 전국 첫 시행

제주지역 중증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검정고시 원서 접수 서비스가 이뤄진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3일 ‘2023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찾아가는 원서 접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이거나 만 65세 이상이 사전에 전화로 신청하면 도교육청 민원실에서 직접 지원자가 원하는 장소를 찾아 원서를 접수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중 와상장애인들에게는 ‘방문하는 검정고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본인의 집이나 희망하는 곳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제1회 검정고시는 4월 8일 치러진다. 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다. ‘찾아가는 원서 접수’ 등 서비스 신청(전화 710-0701~0703)은 오는 8일까지 받는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한 해 무사안녕 기원합니다”... 탐라국 입춘굿 불이 시작되는 입춘(立春)인 지난 4일 오전 제주도 관아에서 마련된 ‘2023 계묘년 탐라국 입춘굿’에서 제주의 1만8000인을 향해들이는 초강제기 열리고 있다. 탐라국입춘굿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을 맞아 한 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제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로, 코로나19를 극복하며 4년만에 대면행사로 진행됐으며 올해 24회째를 맞았다. 강희만기자

제주시, 방치 차량 전수조사 제주시가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각각 채용한다. 채용 인원은 방치 차량 전수조사 4명,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13명이

다. 원서 접수는 이달 6~15일 진행된다. 앞서 제주시는 올해부터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전수조사 일정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이다. 제주시 주차장의 85%를 차지하

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위법 사항을 점검하고 해당 주차장의 분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매년 이뤄지고 있다. 올해도 3월부터 5월까지 전수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모집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 참고. 전선희기자

서귀포경찰서장에 오충익 총경

경찰청 총경 457명 인사

신임 서귀포경찰서장에 오충익(사진)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총경 457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지난 2일 단행했다. 신임 오충익 서장은 서귀포 출신으로 간부 42기로 입직해 제주청 형사과장, 전남청 진도경찰서장, 제주청 부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청 수사과장에는 김기동 인천 논현경찰서장, 제주청 안보수사과장에는 오창한 충남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이 각각 자리를 옮긴다. 또 제주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에 조규형 총경, 제주청 정문감사인권담당관에 이태규 총경, 제주청 정보화장비과장에 김영욱 제주청 수사과장이 발령됐다. 제주청 생활안전과장에는 김준식 안동경찰서장, 제주청 경비교통과장에는 백현석 경기 하남경찰서

장, 제주청 공공안전정보과장에는 김정규 총경이 임명됐다. 한편 최근 총경으로 승진한 제주청 오태욱 총경과 김항년 총경은 각각 부산 112치안상황팀장과 대전청 수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제주청 경무기획과 구슬환 총경은 충남 서천경찰서장, 김종규 제주청 안보수사과장은 부산 기장경찰서장, 한도연 서귀포경찰서장은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으로 발령됐다. 김도영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추임 (사)중소기업융합 제주연합회 제15대 김만호 회장 (사)중소기업융합 제주연합회 제15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 01. 26(목)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최봉규 외 임직원 일동